

‘KKKKKKKK’ 윤영철 4이닝 무실점 위력투



1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KBO리그 키움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KIA 선발 윤영철이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은중호 U-20 아시안컵 결승 불발

우즈베크에 승부차기 패

한국이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 4강에서 홈팀 우즈베크에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했다. 김은중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15일 우즈베크스탄 타슈켄트의 밀리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U-20 아시안컵 대회 13일째 홈팀 우즈베크스탄과 준결승에서 전·후반과 연장전까지 득점 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3으로 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2년 우승 이후 11년 만에 AFC U-20 아시안컵 패권 탈환에 실패했다.

41회째인 이 대회에서 통산 12회 우승,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8년에는 결승에 올라 사우디아라비아에 1-2로 져 준우승했다. 이번 대회 결승은 18일 우즈베크스탄과 이라크의 경기로 밀리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이라크는 앞서 열린 준결승에서 일본을 역시 승부차기 끝에 5-3으로 꺾었다. 이번 대회 4강에 오른 한국과 이라크, 우즈베크스탄과 일본은 올해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손흥민, EPL 통산 100호 골 정조준

19일 토트넘 vs 사우샘프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또 하나의 대기록까지 단 한 골을 남겨뒀다. 토트넘은 19일 0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최하위’ 사우샘프턴과 2022-2023 EPL 2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EPL 통산 100번째 득점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지난 12일 노팅엄 포리스트와 27라운드 홈 경기

에서 자신의 올 시즌 리그 6호 골이자, EPL 통산 99번째 득점을 터트렸다. 현재 EPL 통산 득점 순위 34위인 손흥민은 사우샘프턴에서 한 골을 더하면 매슈 르티시에(은퇴)와 공동 33위로 올라선다. 또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에서 100골을 작성하게 된다. EPL 득점왕(23골)에 오른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이다. 지금까지 100골 이상을 넣은 33명 중 아시아인은 한 명도 없다. /연합뉴스

제구력·경기운영 안정적

특급신인 5선발 경쟁 예고

KIA, 키움에 2-3 역전패

KIA 타이거즈 슈퍼투키 윤영철(19)이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윤영철은 1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1사사구 7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고교 시절 특급 유망주로 평가받은 윤영철은 2023 KBO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KIA에 지명됐다. 당시 강속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지닌 왼손 투수로 평가받았다.

지난 7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3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으나 이날은 달랐다. 윤영철은 키움 타자들을 상대로 60개의 공을 뿌렸고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섞어 던졌다. 최고 구속은 141km로 빠르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제구력과 변화구 구사능력으로 삼진 7개를 뽑아내며 키움 타선을 침묵시켰다. 1회말 김해성과 이형종을 각각 땅볼과 삼진처리한 윤영철은 후속타자 이정후에 안타를 맞았고 라셀에 볼넷을 허용하며 2사 1, 2루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후속타자 박주홍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다. 2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은 윤영철은 기세를 몰아 3회 김광집과 김해성을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3회 2사에서 이형종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이정후를 유격수 땅볼로 요리했다. 4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윤영철은 라셀과 박

주홍을 각각 땅볼처리하고 임지열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쳤다. 임기영과 함께 5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윤영철은 이날 호투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능력을 입증했다. 윤영철의 역투에 타선도 뒤늦게 화답했다. 4회초 2사 상황에서 김규성이 솔로 홈런 포를 가동하며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김도영의 2루타와 김선빈의 볼넷으로 만든 2사 1, 2루에서 최형우가 1타점 적시 1루타를 날리면서 2-0으로 앞섰다. 그러나 윤영철의 마운드를 이어받은 김기훈이 박주홍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고 8회말 등판한 김대유가 김건희에게 2타점을 내주면서 2-3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편 KIA는 17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8-19일 오후 1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두산베어스와 시범경기 2연전을 갖는다. /조혜원 기자

“경쟁력 향상 중장기 대책 마련”

KBO, WBC 부진 대국민 사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야구 대표팀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부진한 성적에 공개 사과했다. KBO는 1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야구 대표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과 경기력을 보인 점에 관해 응원해주신 국민 여

러분과 야구팬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KBO와 10개 구단은 WBC 결과에 큰 책임을 통감하며, 여러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며 “향후 리그 경쟁력과 국가대표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KBO와 10개 구단 단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 야구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각종 제도 신설과 발전 방안에 적용하기로 했다. 야구 대표팀은 일본 도쿄에서 끝난 WBC 본선 1라운드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했던 호주에 7-8로 패한 데 이어 일본에 4-13으로 대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광주체육중 배지성·김성수·김고운빛 ‘금’

회장기 전국중학교레슬링

광주체육중학교가 제33회 회장기 전국중학교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지난 9~15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의 광주체육중 금메달리스트는 남중부 배지성(3년)과 김성수(2년), 여중부 김고운빛(3년)이다. 배지성은 남중부 자유형 80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준결승에서 10-0 테크니컬폴승을 거둔 배지성은 결승에서 강원체육중 최태경을 만났다. 0-8로 지고 있던 배지성은 그라운드 넬스 동작으로 역전 폴승을 거뒀다. 배지성은 그레코로만형 80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성수는 남중부 그레코로만형 51kg급에서 1회전부터 결승까지 화려한 기술로 상대편을 압도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중부 57kg급에 나선 김고운빛은 결승에



왼쪽부터 광주체육중 송호진, 김고운빛, 김성수, 배지성. /광주체육중 제공

서 경북체육중 김소연을 상대로 10-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남중부 자유형 55kg급 송호진(3년)은 은메달을 기록했다.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은 “코로나19로

연습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지난 동계훈련부터 이번 대회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와 힘든 과정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온 선수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현역자 선정

최순호·홍명보·신태용 등 4명

지도자 김정남·공헌자 박태준

최순호 수원FC 단장과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이동국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K리그 명예의 전당’ 초대 현역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들이 K리그 명예의 전당 선수 부문 초대 현역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연맹은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을 맞아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고 첫 현역자 선정 과정을 진행해왔다. 명예의 전당은 ‘선수(STARS)’, ‘지도자(LEDERS)’, ‘공헌자(HONORS)’ 3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2년마다 현역자를 정한다. 올해는 10년마다 1명씩 최고의 선수 총

4명을 뽑았고, 지도자와 공헌자 부문에서 1명씩 선정했다. 선수 부문의 경우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세대별 15인씩 후보를 추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자체 투표(25%), 구단 대표 및 감독 투표(25%), 미디어 투표(25%), 온라인 팬 투표(25%)를 거쳐 현역자가 결정됐다. 1세대 현역자로 선정된 최순호 단장은 1980년 실업팀 포항제철에 입단했고, 프로축구가 출범한 1983년부터 1991년까지 포항제철과 럭키금성에서 활약했다. 2세대 현역자인 홍명보 감독은 1992년 포항에서 데뷔하자마자 리그 우승과 베스트11, 최우수선수(MVP)를 모두 이뤘고, K리그 통산 156경기 14골 8도움을 남겼다. 3세대 현역자로 뽑힌 신태용 감독은 1992년 일화 천마에서 데뷔해 신인상을 받



았고, 1993~1995년 일화가 리그 3연패를 달성할 때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1995년엔 리그 MVP도 거머쥐었다. 4세대 현역자인 이동국 부회장은 통산 548경기 228골 77도움으로 K리그 역대 최다 득점과 최다 공격 포인트, 필드 플레이 어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했다. 지도자와 공헌자 부문에는 각각 김정남 감독과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선정됐다. 이들에 대한 헌액식은 5월 중 열린다. /연합뉴스